

주제회의
여성

2030세대의 사례발표
그 많은 여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김소진
[독립큐레이터]

예술계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대학 시절을 상기해 보자면 분명 미술대학은 여초현상에 놓여있지만,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졸업 직후 활동하는 작가군의 성비는 여남 모두 비슷하긴 했지만, 업계에서 최소 10년 이상 버틴 예술가의 성비를 따지고 보자면 기혼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술' 하기도 힘든데 그들은 어떻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던 걸까?

여성 예술인은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한 결혼을 하게 된 순간 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직면하게 된다.¹⁾ 대학 시절 수업과 관련하여 예술기관에서 잠시 인턴으로 지낸 적이 있었다. 같은 부서 차장님은 일정 시간이 되면 자녀들과 통화를 하시는데 아직도 그 전화내용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돌봐주시는 어른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기분 상태는 어떠한지 등등 물어보는 내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매번 차장님의 전화를 들을 때마다 워킹맘의 인생은 저러한 것일까 다가올 나의 미래를 상상하며 내적 오염을 했던 기억이 난다.

분명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구성원 대다수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지만 항상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소수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역대 기관장들을 살펴봐도 여성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적다. 문화체육관광부 역대 여성 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역대 여성 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대 여성 위원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도대체 그 많은 여성은 어디로 간 걸까?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노동 분업으로 여성은 사회 지위, 자기실현을 위한 권력과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고질적인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수직적 성별 직종 분리가 문화예술계에 비교적 두드러진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 여성에게 그러하듯 미술 씬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예술인들의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작 노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까지 참으로 고되고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평등이 난무하는 이 업계에서 예술가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성은 일에 대한 야망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순간들이 온다. 삶의 균형 속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중이다. 문화예술계에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오랜 시간 인지해 오고 있다.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제는

1)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노동자의 재생산에 일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성역할 규범과 분담 체계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전략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인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 인력 고용 관련 통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 인력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환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